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

2021.1.19(화) 15:00
SK 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축 사

2021. 1. 19.

금 융 위 원 장
은 성 수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석희 대표이사님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님,
그리고 농협은행 은행장님을 대신하여 자리해주신
오경근 농협은행 부행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II. 최근 경제·금융 여건과, 이번 협약식의 의의

1. 최근 경제·금융 여건

우리는 끝없는 터널과 같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희생과 연대 위에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대책과 방역조치가 더해지면서,
터널의 끝에 다다를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금융시장 및 기업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되는 등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가와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금번 협약식의 의의

그러나 위기로부터 '회복'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① 첫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위기·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우리는 위기 이전의 경제수준과 발전속도를 따라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BIG3 산업 등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② 둘째, 산업생태계가 함께 가는 상생 발전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와,
그를 충충이 둘러싸고 있는 산업생태계 전반이
고르게 발전해 나갈 때,
혁신은 한 층 가속화되면서도
향후 있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한 회복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③ 셋째, 금융도 변화하는 기업자금 수요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야 합니다.

금융권은 부동산 담보 등 손쉬운 대출(low-hanging fruit)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감내하되, 더 큰 성과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협약식은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①미래 먹거리 선점·발굴을 위한 과감한 투자이자,

②반도체 산업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조성도 이루어지며,

③금융권이 적극적인 위험분담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자금공급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계와 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자리는 과감한 혁신과 상생을 결합하여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Ⅲ. 민간의 모험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도 이러한 민간의 미래를 위한 모험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1년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차년도 출자사업을 공고하는 등
조성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뉴딜분야에 ‘21년중 18조원 상당의
대출·투자·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둘째,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면서,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③ 셋째, 과거 실적·담보보다는 미래성장성·기술력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약 9,00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도 4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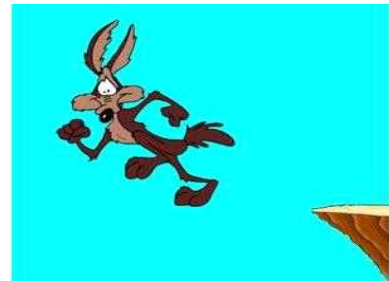
아울러, 기술평가 개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 등
담보력이 미약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IV. 마무리 말씀

미국의 유명한 만화캐릭터의 이름을 딴
'와일 E. 코요테 효과'(Wile E. Coyote Ef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만 열심히 달리면
당시에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어느 한순간 벼랑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림 설명) 미국 만화 '루니툰(Looney Tunes)'의
캐릭터 '와일 E. 코요테'가 다른 캐릭터 '로드러너'를
추격하는 중, 벼랑 끝을 지나 떨어지기 직전인 상황



산업계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지금까지의 성장경로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매순간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